

자동차

Car

기술·부품·가격 '천차만별' 2~3군데 들러 꼼꼼히 체크

■카센터 선택시 주의할점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자동차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배터리나 타이어, 에어컨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여행을 떠날 경우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 정비업소(카센터)를 찾는 운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를 정비할 경우 최소 2군데 이상을 들러 가격을 비교한 뒤 교환 또는 수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다. 정비업소에 따라 소모품 가격과 부품, 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또 동네 근처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단골 정비업소를 지정하고, 정비 후에는 '자동차 사후관리 점검·정비명세서'를 꼼꼼히 챙겨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점검·정비명세서는 소비자와 정비업소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자동차 정비가 급증하는 휴가철을 맞아 정비업소 선택 요령을 소개한다.

◇정비업소는 가까운 곳으로=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해 집이나 회사 근처의 정비업소를 알아두는 게 좋다. 정비업소를 선택할 때는 되도록 주인이 직접 운영하며,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한 곳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우량 정비업소는 문제가 되는 부품의 가격과 공임 등을 알려준 뒤 차량 소유자가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적절

한 조언을 해준다. 또 해당 교체해야 할 것과 나중에라도 같이두면 좋은 것 등을 구분해서 알려준다.

반면 불량 정비업소는 전반적인 상황을 알려주지 않고 물어봐도 얼버무린다. 심지어 급하지 않는 부품까지 같이야 한다고 우기는 경우도 많다. 특히 '값이 싸다'는 점만을 강조

부품값 무조건 싸다면 의심

점검·정비명세서 챙겨 줘야

분쟁시 과실 책임 소재 가려

하는 업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부품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와의 의사소통도 중요하다. 본인이 차를 좀 안다고 '이거 같이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경우 정작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비사가 못보고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이야 할까요?'라는 식으로 묻는 게 훨씬 유리하다.

◇미리 부품 가격을 조사해야=자동차를 정비할 때는 '선점검 후수리'가 요령이다. 2~3군데 이상의 정비업소를 들러 가격을 비교한 뒤 교환 또는 수리하는 게 좋다.

특히 수리하기 전에 부품값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대략적인 견적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또 정비업소에 가서 '부품값이 얼마쯤 하는 것 같은데'라고 넌지시 얘기하면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장점도 있다.

부품값은 현대·기아차의 경우 현대모비스(www.mobis.co.kr)의 '사이버 부품 상담시스템'이나 콜센터(1588-7278)에서 부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비가 끝나면 해당 업소에서 점검·정비명세서를 받아두는 게 좋다. 정비업자가 정비한 자동차에 대해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과잉·부실 정비가 발생될 경우 정비명세서에 의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 및 카드사·보험사 무료서비스 활용하자=국내 신차의 보증기간은 차체 및 일반 부품은 2년·4만km, 엔진 및 동력 전달 계통은 3년·6만km가 기본이지만, 최근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추세다. 보유 차량이 보증기간 내에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보증 수리 혜택기간을 100% 활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나 휴대폰 마일리지 카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들 업체의 서비스 내용을 보면 특정 정비업체와 연계해 엔진오일을 1만원에 교환해준다든지, 무료로 타이어 위치를 바꿔주거나 워셔액을 넣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한 정비업소 직원들이 타이어를 점검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벤츠코리아 리콜

S430 · S500 325대

건설교통부는 20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서 판매중인 벤츠 S430 · S500(사진) 승용차 325대에 제작 결함이 발생해 업체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 아랫부분에 달린 액티브보디 컨트롤 서스펜션(차량자세 자동보정장치) 유



압호스에서 기름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결함으로 인해 실시된다. 대상 차량은 지난 1997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생산된 벤츠 S430(29대)과 S500(296대) 등이다.

서비스 기간은 2009년 1월까지 1년6개월간 이뤄지며, 전국 16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 080-001-1886. /최경호기자 choice@

휴가지에서 차가 갑자기 고장 났을땐

당황 말고 서비스센터·보험사 찾아라

휴가철 장거리 여행을 위해선 출발 전에 자동차 정비업소를 찾아 전반적인 점검을 받는 게 좋다. 하지만 막상 여행을 떠난 뒤 휴가지에서 차량의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외 자동차회사들이 제공하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휴가지에서 고장이 났을 때도 해당 자동차회사나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무료정비 서비스를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

▲국내 완성차업체 무상점검서비스=국내 업체들은 매년 '자동차 하계합동 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 올해는 7월28일부터 8월3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국도·휴양지·해수욕장 등에서 임시서비스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서비스 내용은 엔진·브레이크·타이어 점검과 냉각수·엔진오일 등 각종

오일류 보충 등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북 무주 구천동과 경북 화진해수욕장에서는 국내 완성차 5개사가 합동으로 정비서비스를 진행한다. 고속도로는 경북선 추풍령 휴게소, 호남선 여산휴게소, 영동선 횡성휴게소에 현대·기아·GM대우·쌍용차의 서비스센터가 설치된다.

국도의 경우 현대·기아차는 강원 강릉 일대와 서해안 일대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GM대우는 강원 내설악광장에 서비스센터를 설치한다. 르노삼성성은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긴급 출동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휴가지에서 무상점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오토캠핑장'도 설치된다. 현대차는 강원 원주 성우리조트(27일~8월8일), 기아차는

■보험사 긴급출동·사고접수

회사명	대표전화
교보자동차	1566-1566
그린화재	1588-5959
대한화재	080-778-8572
동부화재	1588-0100
메리츠화재	1566-7711
삼성화재	1588-5114
신동아화재	1566-8000
쌍용화재	1688-1688
엘지화재	1544-0114
제일화재	1566-8282
현대해상	1588-5656

강원 고성군 봉수해수욕장(28일~8월7일), 르노삼성성은 충남 태안군 마검포해수욕장(28일~8월12일)과 경북 영덕군 고래불해수욕장(28일~8월5일)에 오토캠핑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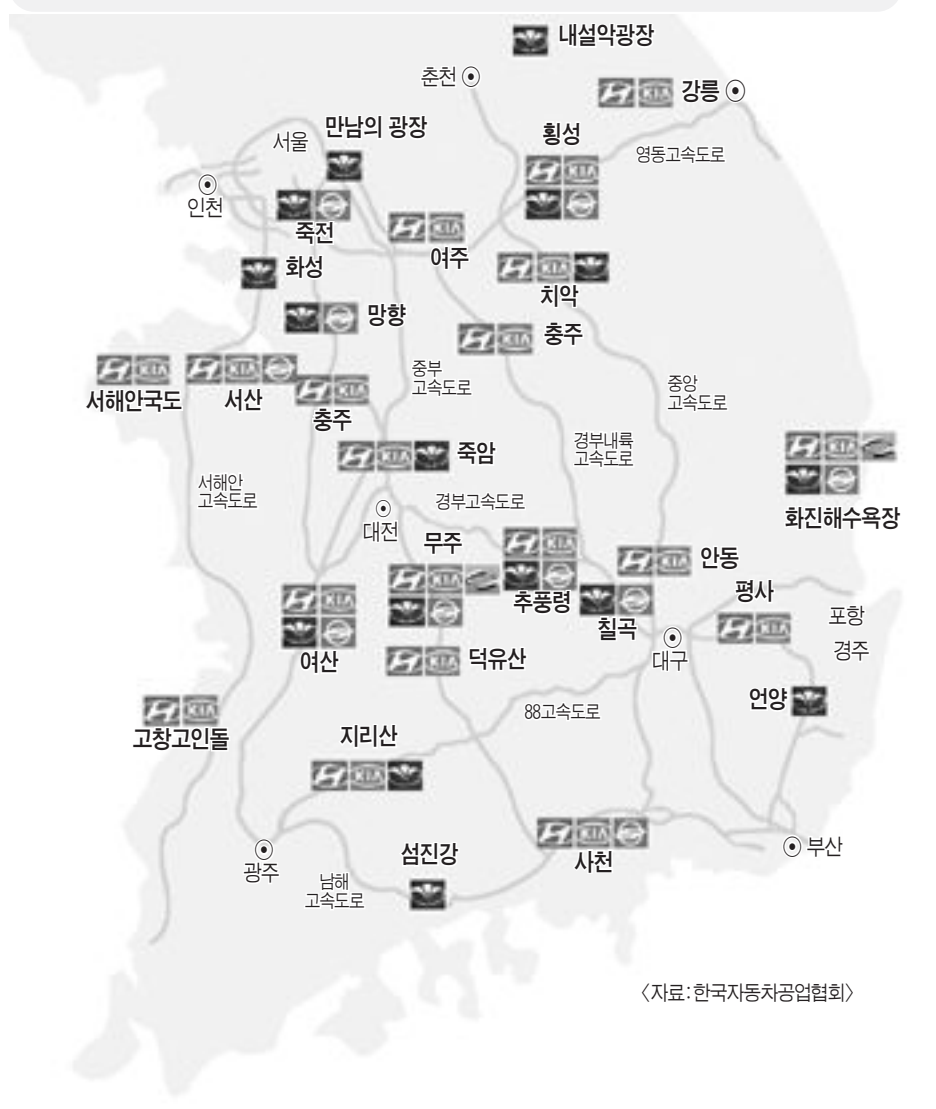
설치할 예정이다.

▲수입차업체의 점검서비스=푸조의 국내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는 오는 24일까지 전국 15개 푸조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을 무상점검하고 부품 및 액세서리 가격을 할인해주는 '푸조 하계 전국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인피니티도 오는 8월31일까지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인 '2007 인피니티 서머 캠페인'을 실시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국내 완성차업체 정비서비스 연락처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GM대우 (080-728-7288)	르노삼성 (080-300-3000)	쌍용차 (080-600-5582)
----------------------	----------------------	---------------------	---------------------	--------------------



(자료:한국자동차공업협회)

공인중개사

8월 1일 첫진도 개강

광주고시학원

주목관리사

문의: 227-8003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문의: 0621531-3636, 531-0700

Summer Wedding Festival

25,000부터 (7.29부터 한시)

문의: 0621228-8000